**고백과 예술 "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이무영 감독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16:9

- 급작스런 소천으로 고인이 되신 이춘연대표님(씨네2000, 영화제작자)에 대한 회상. 그분은 누가복음 7,8장의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다.

-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의 꿈과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향해 달려왔지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이루어주셨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텐데.."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 믿음과 지식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의지를 믿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감동이다.

- 나의 삶을 회상해본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40여년을 목회하신 아버님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된 삶, 축복받은 삶을 사셨다. 미국으로 옮겨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가정경제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고 3때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고 고된 노동을 하며 학업을 이어가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고 그런 아버지를 오히려 존경하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귀국 후 미국에서 쌓은 영화,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재산이 되어 예술평론가의 기회를 얻게 되고, 주목 받는 시나리오작가, 영화감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일도 경험하였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 늘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있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성공담을 자랑하는 간증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풍랑 가운데 가더라도,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 영화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과거 <사랑의 원자탄>, <낮은 데로 임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은 기독교영화 명작들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우리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명작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개교회 이기주의가 길을 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 기독교영화 제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1. 이야기의 소재, 프로젝트, 아이템의 개발--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은 이야기들이 좋겠다.

2. 사람들 -- 감독, 시나리오작가, 배우 등등

3. 자본

- 아트앤미션이 모든 일들을 결국 주님이 이루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질의 응답**

Q1 상업성을 가지면서 구원의 문제를 시나리오로 녹여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루면 좋겠다. 세상은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절제"가 있다. 그러나 너무 금욕적인 삶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도 영적인 고민, 영혼과 구원에 대한 고민,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자면, 일상 속의 소소한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스토리를 찾아내어 품어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트앤미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공모해서 발전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Q2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 데이빗 린치 감독의 <블루 벨벳>. 삶은 어차피 불공평하다는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슬링 블레이드(Sling Blade)